

〈南遊詩〉에 나타난 李奎報의 隱顯觀

孫 政 仁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現實志向과 삶의 姿勢 |
| II. 隱顯의 類型과 觀點 | V. 맺음말 |
| III. 現實逸脫과 自然의 意味 | |

I. 머 리 말

高麗中葉의 代表的 詩人인 李奎報(毅宗 22年, 1168~高宗 28年, 1241)는 2,000 餘首에 이르는 방대한 量의 作品을 통해 多樣한 詩世界를 보여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규보의 詩文學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것도 사실이나, 그에 못지 않게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의 하나로서 武臣亂을 전후한 變혁기를 살다 간 그의 作家意識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見解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무인정권에 아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실마리를 놓쳐 버린, 親體制의이며 權力指向的으로 출세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혹평에서부터 일정한 한계 속에서나마 민족사회의 현실을 다루어 사실적인 시 세계를 열어 놓은 詩人²⁾이라는 소극적인 긍정이나, 자기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극복의 방안을 제시한 실천적 知性人³⁾이라는 적극적인 긍정에 이르기까지 실로 견해들이 구구한 실정이다.

文學作品은 작가 자신의 독특한 삶의 반영물이며, 作家意識의 소산⁴⁾이기

1) 김 현, 〈中世知性と 權力〉《知性》제 1 호(月刊 知性社, 1971. 11), p. 184.

2) 金時鄴, 〈李奎報의 現實認識과 農民詩〉《大東文化研究》12(成均館大, 1978) p. 178.

3) 金鎮英, 〈李奎報 研究〉(서울大 大學院, 1972)

4) Leon Edel, 金允植 譯, 《作家論의 方法》(三英社, 1983), p. 104.

에 한 작가의 作品世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作家意識의 문제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生涯가 길고 起伏이 심했던 이규보의 경우에는 그의 作家意識의 문제를 한꺼번에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一定期間이나 時期別로 파악한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眺望한 다음, 일정한 평가를 내리는 방법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本稿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南遊詩〉를 대상으로 하여 이규보의 隱顯觀에 관해 접근하고자 한다. 〈南遊詩〉는 그의 文集인 《東國李相國集》卷6에 수록된 것으로서, 29세 때인 丙辰年(1196) 5월에서 10월 사이에 黃驪와 尙州를 往來하면서 지은 92首의 紀行詩의인 작품을 말한다.

그 해 4월, 崔忠獻 형제는 李義旼과 그 일당을 誅戮한 다음, 반대파는 물론이거니와 舊臣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은 모두 처형하였다.

그의 文集 年譜 丙辰年條⁵⁾의 내용만으로는 登程動機를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作品 자체에 언급된 것까지를 고려해 보면, 이규보는 피비린내 나는 亂을 피해 南쪽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하겠다.

〈南遊詩〉를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이규보가 하나의 作家로서 自己世界를 구축했다고 보여지는 20代 後半⁶⁾에 지은 작품이라는 점, 둘째 宦路에 나가기 직전인 不遇·放浪期에 지은 작품이라는 점, 셋째 一定期間 안에 集中的으로 지은 작품이라는 점 등 몇 가지 特性을 지닌 작품이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우선 隱顯의 一般的인 類型과 隱顯에 대한 이규보의 觀點에 대해서 살펴 본 다음, 〈南遊詩〉에 나타난 이규보의 隱顯觀과 그것의 展開樣相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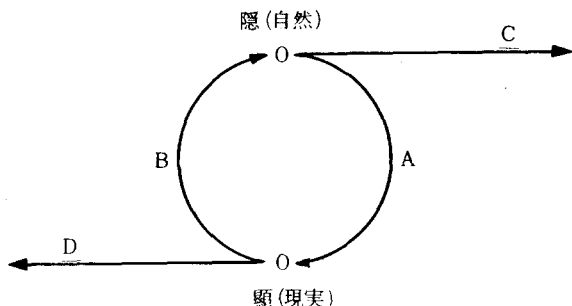
II. 隱顯의 類型과 李奎報의 觀點

隱은 그것이 現實逃避의 隱遁이든 德行高士의 超世를 뜻하는 隱逸⁷⁾이든

- 5) “四月 京師亂 妹夫南流黃驪 五月 公携妹氏往焉 是年春 母家後壻出守尙州 六月 自黃驪赴尙州觀省 得寒熱病 數月不愈 至十月方還 詩集中有南遊詩 無慮九十餘首 是黃驪尙州所著也.”
- 6) 이 점은 이 때에 이르러 當代의 혼란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東明王篇〉(26세 作), 〈開元天寶詠史詩〉(27세 作) 등의 詠史詩를 창작한 점을 통해서도 짐작되는 바이다.
- 7) 李鍾殷, 《韓國詩歌上の 道家思想研究》(善成文化社, 1978), p.71.

政治現實과 絶緣하여 林泉에 逍遙自適하는 경우를 뜻하고, 顯은 現實에 대한 강한 執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參與하여 經綸을 펴는 경우를 뜻한다.

이와 같은 去來 隱顯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圖表化될 수 있다.⁸⁾



위의 圖表에서 세 가지 基本的인 類型을 찾을 수 있다. A·B循環型은 A와 B 사이에 현실에의 복귀와 자연에의 회귀 즉, 顯과 隱이 지속되면서 양자 사이에 순환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이고, C直進型은 현실로 복귀할 것을 거부하고 隱으로 一貫하는 모습이고, D直進型은 자연으로 회귀할 것을 거부하고 顯으로 一貫하는 모습이다.

A·B循環型에서의 隱은 도피가 아니고 德을 쌓고 經綸을 펴기 위한 준비기이며, 顯은 德을 베풀고 經綸을 펴 立功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C直進型은 현실참여의 길이 있어도 名分論에 얽매이거나 현실이란 아예 재앙의 빌미일 뿐이라는 先入見에 사로잡혀 현실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은둔으로 일관해 버리는 型이다. D直進型은 隱과 차단되어, 살아도 현실에서 살고 죽어도 현실에서 죽는 型으로 權力에 지나치게 연연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 致化澤民하는 길에 힘을 쏟는 型이다.

이규보는 이상의 세 가지 類型 중에서 어느 類型의 隱顯觀을 지니고 있었을까? 이와 관련지어 몇 가지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규보는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으나, 16·18·20세에 세 차례에 걸쳐 司馬試에 응시했어 거듭 落榜하고 말았다. 그 뒤 이규보는 22세 되던 해 봄에 司馬試에 응시하여도 첫째로 뽑혔고, 이듬해 6월에는 禮部試에 응시하

8) 崔信浩, 〈文集에 나타난 선비들의 自然觀〉《韓國古典文學研究》(新丘文化社, 1983), p.378.

여 同進士에 뽑혔으나, 벼슬길에 쉽사리 열리지 않아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24세 때 父親喪을 당하게 되자 天磨山에 寓居해 버린다.

이규보는 天磨山에 寓居해 있으면서 油然히 퍼질 때는 君子가 세상에 나가는 모습을 지니고, 歛然히 걷힐 때는 高人이 세상을 은둔하는 모습을 지닌 白雲⁹⁾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白雲居士라 自號하였다. 이럴 때 이규보의 心情은 어떠하였을까?

기왕의 論著 중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①李佑成: 그는 스스로 白雲居士라 일컬었으나, 그의 思想은 결코 隱遁의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積極으로 現實에 參與할 것을 志願했다.¹⁰⁾

② 전형대: 이규보는 白雲을 단순히 부정적이고 현실도피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백운거사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¹¹⁾

③ 徐首生: 그래서 天磨山에 往來하고 俗世를 떠나 佛仙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던 모양이다. 人間의 慾望의 거리에서 佛仙의 淸淨한 仙境에 놀고자 하여 그의 號마저 白雲이라 지었을 것이다.¹²⁾

④ 金鎮英: 그가 白雲을 취하고 '居士'라 택하여 自號한 까닭은 白雲처럼 거리낌 없이 物外에 자작하고 居士처럼 道를 닦고자 한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超世間的, 仙道教的 취향에 쫓리고 있음을 보여준다.¹³⁾

⑤朴莪熙: 白雲居士란 그의 불우한 사정으로부터 관념적 도피를 꾀한 나머지의 일이었을 뿐이지 절대적 이상향을 찾으려는 선비로서의 自號이지는 않다.¹⁴⁾

이규보의 心的狀態에 대한 이상의 見解들은 積極的인 現實參與, 現實逃避의 隱遁, 超世的 隱逸이라는 세 가지로 大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용한 각각의 견해들은 다른 한쪽 면을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면서 마련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白雲은 물러나 은거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만도 아니며, 나아가서 크게 뜻을 펴는 거침없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만도 아니다. 이규보가 위의 세 가지 자세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當時의 이규보의 內面에는 新進儒士로서의 원대한 포부와 야망이 있었으나, 一面

9) “油然而舒 君子之出也 歛然而卷 高人之隱也” 〈白雲居士錄語〉《全集》20, p.221. 《東國李相國集》의 面數를 표시할 때는 먼저 略하여 《全集》으로만 표시한 다음, 卷數와 《高麗名賢集》1.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3)의 面數를 표시한다. 이하 같음.

10) 李佑成, 〈高麗中期的 民族敍事詩〉《論文集》7輯, (成均館大學校, 1962), P.93.

11) 전형대, 〈이규보의 삶과 문학〉(弘盛社, 1983), p.46.

12) 徐首生, 〈高麗朝漢文學研究〉(螢雪出版社, 1971), p.144.

13) 金鎮英, 〈李奎報 文學研究〉(서울대 博士學位論文, 1982), p.72.

14) 朴莪熙, 〈武人政權時代의 文人〉《韓國史》7 (국사편찬위원회, 1977), p.93.

당시의 형세에서 대응되지 못한 不運과 父親의 死亡 등으로 現實에 대한 괴리감과 虛無的, 超世的 취향이 교차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규보는 위의 세 가지 자세를 아울러 지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隱顯의 兩面性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解釋은 折衷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서, 이규보는 그의 隱顯觀과 직접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城 동쪽 奉香里 서쪽에 草堂 수십 간이 있으니, 白雲居士가 기거한 곳이다.… 내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면 初一의 體에 응하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벼슬하는 데에 급급하지 않고 물러나서는 숨는 데에 구차하지 않아, 이것으로 평일이 되면 初二의 辭에 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얻어서 軒號를 ‘止止’라고 하였으니, 과연 나의 出處와 같지 않은가? 이른바, 그칠 때 그친다(止止)고 하는 것은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치는 것이니, 그 그칠 곳이 아닌 데에 그치면, 그 그침은 그칠 곳에 그친 것이 아니다.¹⁵⁾

그대가 나를 보려거든
나의 그치는 바를 보게나
그칠 때에 그쳐서 움직이지 아니하던가
그렇다면 오히려 그치지 못한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고요하다 하는데
고요하다면 벌써 움직일 뜻이 있는 것이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나타나지 않아야
그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칠 곳에 그쳤다(止止)라는 말로 軒名을 지었으니
軒 또한 볼 수 없는 것이다.¹⁶⁾

이규보는 자신의 出處에 관한 人生觀을 치려한 위의 글에서 隱顯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때가 행할 단계가 되었는데도 행하지 않고 그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때가 그칠 때인데도 그치지 않고 행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곧 때가 隱居해야 할 때면 隱居에 멈추어야

15) “城之東奉香之里西肘 有草堂數十楹 白雲居士所寄也… 予能識其所止而止 則可謂應初一之體 進不急於仕 退不苟於隱 以是而爲平人 則可謂協初二之辭 予得是而名軒曰止止 果不類予之行藏耶 夫所謂止止者 能知其所止而止之者也 非其所止而止其止也 非止止也” <止止軒記> 《全集》23, p.224.

16) “予欲觀我 觀我所止 止止而其不動乎 然則猶未止 不動之謂靜 靜則有動意 動靜不見然後 曰止 止止以名軒 軒亦不可視” <止止軒銘> 《全集》19, p.212.

하고, 때가 顯해야 할 때면 顯에 멈추어야 한다는 뜻도 된다. 이럴 때, 이규보에게 있어서 顯이란 단순한 道를 쌓아 훌륭한 인격과 완숙한 사상을 펴는 것으로서, 단순한 나아감이 아니라 德을 베푸는 것이요, 隱이란 단순한 물러섬이 아니라 德을 쌓는 시간이요 장소인 셈이다. 그러므로 이규보는 眞隱者라야 顯에 能할 수 있고, 眞顯者라야 隱에 能할 수 있다는 입장¹⁷⁾과 一脈相通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겠다.

위의 〈止止軒記〉와 〈止止軒銘〉은 이규보가 22세에 급제한 후, 20년 가까이 仕宦의 길에 제대로 오르지 못하다가 40세 되던 해에 權補直翰林院에 제수되어 榮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에 지은 글이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내 보인 隱顯觀이란 것도 不遇·放浪期를 포함한 이규보의 全生涯에 두루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의 진솔한 심정을 토로한 것인지는 현단계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南遊詩〉의 詩篇들 속에서도 隱과 顯의 두 가지 모습이 共存하고 있음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어쩌면 紀行의 순간순간마다 現場에서 읊어 나간 그러한 작품들 속에서, 苦惱의 產物로서의 詩에서보다 더욱 진솔한 心情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때, 隱이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現實逸脱意志내지는 自然志向意志일 것이요, 顯이란 現實志向意志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와 같은 矛盾·對立된 두 意志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실제 작품을 통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Ⅲ. 現實逸脱과 自然의 意味

〈南遊詩〉중에서도 이규보의 出處觀을 엿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음이 주목된다.

我性本曠坦	내 성품 본래 활달하여
所至任意留	가는 곳마다 마음대로 머문다오
得坎即可止	웅덩이 만나면 곧 그치고
乘流即可浮	물을 만나면 곧 배를 띄운다오
此留有何惡	여기에 머무른들 무엇이 나쁠 것 있으며
彼去有何求	저기에 간들 좋을 것 있겠나

17) “眞隱者能顯也 眞顯者能隱也” 〈逸齊記〉《西河集》

大哉乾坤內 크나큰 천지의 안에
吾生得休休¹⁸⁾ 내 인생 무한히도 즐겁다오

이 詩에서 웅덩이에 이르면 곧 거기에 멈춘다고 한 표현은 〈止止軒記〉와 〈止止軒銘〉에서 능히 그 그칠 곳을 알아서 그친다고 한 것의 詩의 表現일 수 있다. 흐르는 물을 만나면 곧 배를 띄운다는 것은 행할 단계가 되었으면 그치지 않고 행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곧, 때가 隱居해야 할 때면 隱居에 멈추고, 때가 顯해야 할 때면 顯에 멈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규보의 隱顯觀은 不遇·放浪期나 榮達期를 통해 변함없이 일관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까? 그러나 ‘여기에 머무른들 무엇이 나쁠 것 있으며, 저기에 간들 무엇이 좋을 것 있겠나’라는 말을 통해서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때, 여기는 현실을 벗어난 自然을 말하는 것이며, 저기는 자연을 벗어난 現實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귀절은 상당히 超世·隱逸의 인 분위기와 處世觀을 느끼게 한다. 그러기에 무한히 큰 天地 안에서 人生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규보의 이와 같은 自然志向意志는 구속받기 싫어하며, 열려진 세계를 지향하는 自由奔放하고 曠達한 天性에 기인한다.

創作된 순서에 따라 작품을 검토하여 現實逸脫에 따른 自然의 意味를 살펴보고자 한다.

〈南遊詩〉가 紀行詩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이상 出發時의 感懷를 읊은 작품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去去指鄉路	한발 한발 고향을 향하며
悠悠出國門	유유히 성문을 나서노라
離腸輪百轉	떠나는 심정 진정할길 없어
征淚雨雙翻	슬픈 눈물 두 뺨에 비오듯
綠樹烟猶重	푸른 나무에 내 서리코
蒼崖日漸暎	푸른 언덕엔 해가 돌누나
喚人鶯舌巧	사람을 부르노라 꾀꼬리 노래 부르고
送客鳥聲喧	손을 전송하노라 새들 지저귐다
遠別亂心緒	멀리 이별하니 마음 심란하고
早行餘睡痕	일찍 길 떠나니 잠이 덜 깬구나
歸驢不可緩	돌아가는 말 늦출 수 없으니
荒草滿陶園 ¹⁹⁾	우거진 풀 도원에 가득하네

18) 〈憩施厚館〉《全集》6, p.66.

19) 〈執徐歲五月日將遊黃驪初出東門馬上作有〉《全集》6, p.66.

이규보는 丙辰年 5월에 고향인 黃驪로 출발하면서 멀리 이별하는 심정에 눈물 흘리며 심란하다고 한다. 이것은 머물고 싶은 곳(현실)에 마음대로 머물 수 없게 된 違和된 상황 때문이다. 현실의 어떠한 공간에서도 安定과 平和를 발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지 그에 그것은 期約할 수 없는 먼 이별로 인식된다.

詩題에 나타나 있듯이 고향으로 遊覽차 떠나는 마당에 그것을 이별로 인식하고 심란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가족과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할 것이니 그 이별은 오죽했겠느냐고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행은 風流를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다. 세속의 일을 단념하고 초탈하여 노닐거나 즐기기 위한 樂風流의 여행이라면 출발시에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심란해 할 것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출발이 이규보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혼탁한 시대를 만나 亂을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떠나는 것이기에, 이 떠듦은 無意味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슬픔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그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현실과 떨어져 무의미하게 떠돌 때 자신은 현실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강한 不安感이 이규보의 內面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을 떠나게 된 이유는 다르지만, 현실을 떠나 있으면서 지은 다음 작품을 통해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世人皆忘我	세상 사람 모두 나를 잊어버리니
四海一身孤	사해의 한 몸이 외롭구나
豈唯世忘我	어찌 남들만 나를 잊을 뿐이라
兄弟亦忘予	형제도 모두 나를 잊는다고
今日婦忘我	오늘은 아내가 나를 잊게 되고
明日吾忘吾	내일엔 내가 나를 잊을 테지
却後天地內	이런 뒤에 온 천지 안에
了無親與疎 ²⁰⁾	친한 이도 생소한 이도 다 없을 겨야

이 詩는 이규보가 16·18·20세에 거듭 落榜한 후에 23세가 되어서야 同進士에 뽑히기는 하였으나, 科第가 낮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차에 父親喪을 당하게 되자 天磨山에 寓居한 24세 때 지은 작품이다. 그의 앞길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을 뿐, 좀처럼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때 그가 겪는 고뇌를 읊고 있다.

20) 〈詠志〉《全集》I, p.18.

1·2句에서는 我를 世人과, 一身을 四海와 對立시킴으로써 그가 겪는 외로움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 世人→兄弟→婦人의 순으로 자기와 가까워지면서, ‘내일엔 내가 잊을테지’라는 표현에 이르러서는 외로움이 極大化되고 있다. 감당키 어려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친한 이도 생소한 이도 다 없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지어 볼 때, 이별은 亂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지만, 한편으로 세상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 버릴 엄청난 아픔을 감수해야만 할 이별이다. 이규보는 현실적인 죽음을 피하기 위해 떠나면서 관념적인 죽음(잊혀짐)과 마주해야 하는 비애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별의 심란함을 토로한 뒤 바로 다음 작품에서 現實을 떠나 自然에 머무르게 되니 ‘크나큰 천지 안에 내 인생 무한히도 즐겁다오’라고 한 것은 曠達한 이규보의 天性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自慰的인 표현이라는 점을看過할 수 없다. 그만큼 이규보의 갈등은 심각한 것이다.

출발하면서 생겨난 정신적 갈등은 臨津을 건너면서부터 自然의 調和된 모습과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對照되면서 차츰 심화되기 시작한다.

扁舟駕浪疾於飛	조각 배에 순풍부니 빠르기 나는 듯
水氣淒涼逼客衣	싸늘한 물기운 옷에 스며든다
綠岸有時雙鷺立	푸른 언덕에 해오라기 나란히 섰기도
碧天何處一帆歸	파아란 하늘 어느 곳으로 돛대 하나 가누나
山含紅日低村樹	산은 붉은 태양 삼키니 마을 나무 나직하고
風卷銀濤碎釣磯	바람은 은물결 길어다가 낚시 여울에 부수누나
初出東門尙悵悵	처음 동문을 나올 때도 오히려 슬펐으니
渡江無奈益依依 ²¹⁾	강을 건너매 더욱 연연해짐 어쩔 수 없네

고향으로 가는 말을 늦출 수 없었듯이, 順風을 타고 흐르는 배도 멈출 수 없다. 이때, ‘不可緩’이 현실의 불가항력적인 구속력을 암시한다면, ‘疾於飛’의 빠른 속도감은 그 구속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水氣淒涼’은 물기운의 싸늘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不安定性에서 오는 自我의 처량한 심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이 詩에서 느껴지는 쓸쓸한 분위기의 풍경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규보의 마음과 서로 호응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파아란 하늘 어느 곳으로 돛대 하나 가누나’라는

21) 〈渡臨津〉《全集》6, p.66.

표현은 이규보 자신을 읊은 것이라 하겠다. 이때, ‘何處’는 앞날을 豫期할 수 없는 떠도는 삶의 不安定性을, ‘一帆’은 외로운 신세를 의미한다. 이처럼 현실과 違和된 자신의 모습이 ‘雙鷺立’한 自然의 調和된 모습과 對照되면서 이규보는 갈등을 느끼게 된다.

山이 붉은 해를 삼킨다거나, 바람이 은물결을 부순다는 표현은 이규보의 심정이 극도로 파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바람(風)으로 표상되는 現實과, 扁舟・一帆으로 표상되는 自我는 도저히 和合할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기에 離別과 斷絶의 場으로 표상되는 江을 건너면서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朝日初昇宿霧收	아침 해 떠오르자 안개 걷히는데
促轡行到漢江頭	재찍을 재촉하여 한강 머리 이르렀네
天王不返憑誰問	천왕이 돌아오지 않으니 누구에게 물으리
沙鳥閑飛水自流 ²²⁾	해오라기 한가히 나는데 물만 흐르누나

이 詩는 臨津을 건너 沙平津에서 잔 다음 강가에서 배를 기다리며 쓴 것이다. 天王은 天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周昭王을 가리킨다. 昭王이 남쪽 지방을 巡守하다가 漢水를 건너게 되었는데, 뱃사공이 미워하여 아교로 풀칠하여 만든 배를 태우니 中流에 이르러 배가 그만 파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昭王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규보는 이 詩에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昭王의 故事를 끌어옴으로써 언제 돌아갈는지 期約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 天王이 돌아오지 않으나 물어 볼 사람이 없었듯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無意味한 떠돌이 어느 때에 끝나서 현실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해오라기 한가롭게 날고 물 질로 흐르는 自然의 調和된 모습을 통해, 한가롭지 못하고 不安定하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된다. 물의 ‘自流’하는 모습을 詩에 올린 것은 현실의 불가항력적인 구속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山水間에 떠돌게 됨을 切感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규보가 자연에 가까이 가셔도 자연에 沒入하지 못하고 정신적 갈등을 느끼는 것은 자연을 觀念의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22) <江上待舟>《全集》6, p.66.

路入荒榛日斜	길이 우거진 숲 속으로 들어가니 해지는 것 겁나는데
忽聞啼犬認人家	홀연히 개 짖는 소리 들리니 인가 있음 알겠구나
孤村畏盜猶橫戟	외로운 마을에도 도적을 두려워 오히려 창을 비끼고
古院逢僧暫試茶	옛 사원에서 중을 만나 잠깐 차를 맛본다오
萬里歸雲閑送鶴	만리에 돌아가는 구름은 한가로이 학을 전송하고
一溪高柳靜藏鷗	사내의 높은 버들에는 고요하게 까마귀 깃들었네
此身曾作江山主	이 몸이 마침내 강산의 주인이 되리니
聞道黃驄似永嘉 ²³⁾	황호가 영가와 같은 말 들었노라

이 詩는 고향인 黃驄에 들어가기에 앞서 雙嶺에 자면서 쓴 것이다. 詩의 분위기로 볼 때, 이 詩는 山寺에 들기 前後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전반부의 주조적 분위기는 山中의 고요함이나 평온함이 아니라 어두움이 가져다 주는 외로움과 두려움이다. 숲 속의 어두움은 도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 주기도 하지만, 화려하고 분명한 현실을 떠나 온 외로움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山寺에 들고난 뒤 아주 달라져 마침내 江山의 主人의 되었노라고 말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前後半의 시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후반부에서 詩人과 自然이 하나가 되어 物我一致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詩에서는 자연의 신비 속에 자신을 몰입하여 완전 동화시키는 몰아적 경지²⁴⁾에 이르지 못했다. 자연과의 완전 합일의 척도를 仙意識²⁵⁾에 둘 때, 이 詩에서의 詩의 自我는 초현실적인 자아로 환치되어 仙의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 현실적인 자아 그대로의 관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이규보는 앞의 〈江山待舟〉에서도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읊은 바 있지만, 그때의 和合된 자연은 違和된 자신과 대조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이 詩의 5,6句에 나타나 있는 자연은 그대로 自我와 和合된 자연이다. 이처럼 이규보는 자연의 조화미를 관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정신적 갈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내면의 평정을 찾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규보가 江山主가 되었다고 자처할 수 있게 된 것은 관조적 입장에서 자연을 접하기 시작한 것에 연유한 것이긴 해도 고향을 눈 앞에 둔 安堵感에도 기인한다.

23) 〈宿雙嶺〉《全集》6, p. 66.

24) 李演載, 《高麗詩와 神仙思想의 理解》(亞細亞文化社, 1989), p.65.

25) —, 같은 책, p.67.

다음 작품을 통해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跨驢才度嶺	나귀 타고 겨우 고개를 넘으니
縣枕碧江頭	고을이 푸른 강 머리를 베고 있구나
水國移蓬島	수국은 봉도를 옮겨 놓은 듯
人家住沃州	인가는 옥주에 살고 있네
地形如走虎	지형은 달리는 범인 듯
山勢似騰虬	산세는 나는 교통인 듯
已脫王城厄	이미 왕성의 액 벗어 났으니
還休客路遊	객로의 해냄 쉬겠구나
鄉親尋版籍	고향의 친척은 판적에서 찾아내고
農畝問先疇	농토는 선세의 두둑을 묻노라
置酒呼田叟	술을 장만하고 늙은 농부 불러다가
勸勤力穡謀	농사짓는 방법 부지런히 묻는다오

草草事行李	초초히 행장을 수습하여
茫茫涉便艱	멀리멀리 어려운 길 건너왔네
燎鬚隨痛妹	수염을 태워가며 병든 누이 시중하고
扇枕憶慈顏	베게에 부채질하며 어머니 얼굴 생각한다오
上國風塵暗	상국에는 풍진이 아득한데
南州日月閑	남쪽 고을에는 세월이 한가하구나
此邦堪土著	이 고장 오래 살 만하니
端稱養老頑 ²⁶⁾	정히 오활한 이내 몸에 알맞구나

이 作品의 첫首는 고향의 풍경묘사로 시작하고 있다. 이규보는 강가의 고향 마을을 仙人이 살고 있는 蓬島나, 晉의 高僧 支遁이 鶴을 놓아주고 말을 기른 沃州와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江山主를 자처하면서 자연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혼탁한 현실에 시달리다 돌아온 사람에게는 고향은 현실과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로 관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규보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 詩에서 고향은 떠돌아 다니는 나그네의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고뇌를 씻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 있다.

이규보는 이 詩에서 현실의 모습을 다만 ‘王城厄’으로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王城의 亂을 만나 얼마나 불안해 했던가는 곧 이어 쓴 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그는 고향의 進士 李大成이 초청하여 술 마시는 자리에서 走筆로 써서 준 詩 중에서,

26) 〈初人黃驢二首〉《全集》6, p.66.

四筵賓客各相顧	자리에 가득한 손들 각각 서로 돌아보며
問我何事多酸辛	나에게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물기에
答云近者王城亂	나는 대답하길 근처에 왕성 난리로
白日九街殷血新	대낮 큰 거리에 검붉은 피가 흐르니
我亦僅免崑岡焚 ²⁷⁾	나도 겨우 곤강의 태운 면했으나
離流艱厄難勝陳	유리 간악 이루다 말할 수 없소
危腸觸地即嗚咽	불안한 심정 가는 곳마다 목매니
況此嶺外烟霞晨	하물며 이 영외의 연하 새벽이겠소
痛飲粗堪寬我恨	흥뻑 마시면 이내 한 조금 누그러질 것이니
請君更酌三四巡 ²⁸⁾	그대여 다시 서너 잔 따라주오

라고 하여 亂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규보가 고향인 黃驪에 처음 들어가면서 일차적으로 느낀 감정이 ‘已脫王城厄，還休客路遊’라는 안도감이라는 것은 심분 이해할 수 있다. 그가 늙은 농부를 불러다가 농사짓는 방법을 부지런히 묻는 것은 고향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거기에 永住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上國(王城)에는 風塵이 아득한 데 비해, 南州(黃驪)에는 세월이 한가한 데서 오는 一時的 安住處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此邦堪土着’이라는 표현도 말 그대로 土着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避亂을 위한 해법을 잠시 멈추고 불안한 심정을 진정시키고자 一時的으로 避世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의 시는 그의 그러한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暫得休休樂	잠깐 한가로운 즐거움을 얻어
聊償役役勞	고생스러웠던 수고를 갚으려 하오
憑師容卜築	선사가 복측하는 것을 용납해 준다면
小隱此簪蒿 ²⁹⁾	잠시 여기에 은둔하여 쭈대로 비너하겠네

앞의 시에서 上國과 南洲의 상황이 ‘風塵暗’과 ‘日月閑’으로 대조되었듯이, 이 시에서도 ‘役役勞’와 ‘休休樂’으로 대조되어 있다. 이때 이규보에게 있어서 자연은 永住할 자연이 아니라 잠깐 쉬어 갈 자연이다. 그러기에 그는 首

27) 崑岡의 태운: 崑岡은 중국의 崑崙山. 《書經 胤征》에 “불이 곤강을 태우면 옥과 돌이 탄다(火炎崑岡 玉石俱焚)”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큰 환란을 만나면 사람의 善惡을 가리지 않고 모두 피해를 당한다는 뜻이다.

28) 〈李進士大成邀飲席上走筆贈之〉《全集》6, p.67.

29) 〈寓花開寺贈堂頭〉《全集》6, p.68.

聯에서 ‘잠시’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尾聯에서 다시 한번 ‘잠시’ 은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철저한 時間觀念을 통해서도 이규보에게 있어서 田野隱居란 一時的 避世를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규보에게 있어서 自然의 또 다른 의미는 現實志向意志가 좌절되는 데서 오는 패배자의 安住處로 觀念된다는 것이다.

憶昔共遊長安中	장안에서 함께 놀던 옛날을 생각하니
算來一十四春風	열 네 해가 되었구려
君時氣壯未三十	그대는 그때 혈기 왕성한 삼십 이전이어서
一身謂可趁飛鴻	나는 기러기라도 따를 수 있다고 했었네
我亦鬢綠最年少	나 역시 검은 머리에 가장 연소하여
眼電爛爛如王戎	번개처럼 번쩍이는 눈동자 왕웅 같았지
別來雲散各何處	이별한 뒤론 구름처럼 흩어져 각각 어느 곳에 있었던가
四海風塵雙轉蓬	사해 풍진에 쌍으로 굴러다니는 쑥대였구려
相逢一笑撫銅狄	서로 만나 한 번 웃고 동저울 어루만지며
進淚無言意不窮	숫는 눈물에 말 못하니 뜻만 무궁하구려
師今已非昔日容	대사는 이미 옛날 얼굴이 아니라
瘦與松頭老鶴同	소나무 위에 늙은 학처럼 여위었네
我亦老大心轉縮	나 역시 늙고 의지 또한 좁아져서
無復昔日氣如虹	다시는 무지개 같은 옛날 기개가 없다가
論情未終各悽惻	정을 다 토론했지 못하고 각각 슬퍼하여
不覺半峯斜日紅	산 중턱에 해지는 줄 몰랐네
人生一世須臾爾	인생의 한 평생 잠깐이거니
早謝名利從支公 ³⁰⁾	일찍 명리를 사절하고 지공을 따르리라

이 詩는 마지막 2句에 유의한다면, 人生의 有限性에 따른 生의 虛無를 切感하고서 名利를 사절하고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의지를 읊은 詩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그는 일찍부터 生의 無常함을 깨닫고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이 미치광이라고 할 정도로 술을 마시기도 했고,³¹⁾ 나아가 超

30) 〈是日入元興寺見故人珪師贈之〉《全集》6, p.71.

31) 이규보의 頌酒詩 중에는 人生의 有限性에 대한 認識에서 오는 切迫感이 담겨 있다. 風流스런 一面을 지닌 그의 頌酒詩의 詩想展開는 ‘自然→人生의 有限性(浮生)→詩·酒·琴→陶醉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규보에게 있어 風流는 그 자체로서 얻어진다기보다는 自然과의 和合이라는 고양된 상태에서, 人生의 有限性을 절감하면서 가라 앉다가, 詩·酒·琴으로 인해 다시 상승하는 起伏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拙稿, 〈李奎報 古詩研究〉(嶺南大學校 大學院, 1981), PP. 51~55. 참조.

世의 隱逸者들처럼 功名·富貴·功利와 같은 榮華에 執着하지 않고 超世하려는 자세를 여러 詩篇들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다.³²⁾

그러나 이 詩를 그렇게만 보아 버리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 이규보가 이 詩에서 은둔하겠다고 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人生一世須臾爾’라는 것이지만, 이것은 自慰的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14·15句의 표현처럼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위축되고 옛날의 기개는 사라져가는 데서 오는 심한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의 이규보는 일개 書生의 신세를 면해 줄 官職을 열망하고 있었으나, 現實志向意志가 좌절됨으로써 크게 傷心하고 있었다.³³⁾ 절록대며 이리저리 다니는 자기의 기구한 운명과 곤궁함을 탄식하며 오직 자기 혼자 뒤졌음을 초조하게 생각하다가 끝내 벼슬 없음을 탄식하는 詩를 짓기까지 했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규보는 앞에서 살펴 본 詩에서, 총명하여 패기 만만하던 어린시절(5,6句)과 기개가 사라진 나약한 현재(13,14句)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四海風塵에 쓸대같이 굴러다니는 비참한 자기 신세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IV. 現實志向과 삶의 姿勢

이규보는 自然志向意志로 일관하지 못하고 여행의 중간 쯤에서부터 現實志向意志를 보이기 시작한다. 現實志向에 따른 삶의 方式은 自然의 의미처럼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실제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寂寞殘宵月似波	적막한 밤 달빛은 물결처럼 잔잔한데
空山啼遍奈明何	빈 산에 울음소리 편만하니 날이 새면 어이하리
十年痛哭窮途淚	십년을 통곡한 곤궁한 눈물

32) “得道已無事…… 我是亡機人…… 無心白駒詩”〈北山雜題九首〉《全集》5, p.55.

33) 〈重遊北山二首〉중 제 1首 2句의 “十年猶是一書生”과 제 2首 2句의 “十年檻籠困徘徊”《全集》1, p.18. 의 자탄 섞인 표현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이규보가 얻고자 한 것은 書生의 身世를 면해 줄 官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4) “… 寒子誠癡賦, 賦命實崎嶇…… 晚落蟬泥困, 那堪撫劍吁…… 同門皆振羽, 唯我向揜榆……”, 〈呈侍郎自牧一白韻〉《全集》1, p.16. “常無官常無官, 四方餬口非所歡, 圖免居閑日遺難, 噫噫人生一世賦命何酸寒.”〈無官嘆〉《全集》3, p.44.

與爾朱臂血孰多³⁵⁾ 너의 붉은 입술과 누가 더 많은가

이 詩는 黃驪와 尙州를 지나고 鳳頭寺, 花開寺, 龍潭寺 등을 거쳐 8월 9일 경에 元興寺에 묵으면서 달밤에 子規의 울음 소리를 듣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移入시켜 쓴 詩다.

여기서 窮途의 눈물이란 아무런 방편이 없는 곤궁한 환경에 처한 이규보 자신의 곤궁한 눈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 詩에서의 嗟歎의인 표현은 〈重遊北山二首〉 중에서 ‘십년 동안 떠도는 신세 한결같이 곤궁하구나’, ‘십년을 지냈어도 나는 한 書生이로다’와, 〈無官嘆〉 등에서 보이는 표현과 같은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의 이규보가 염원하고 있던 것은 일개 書生의 신세를 면해 줄 官職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重遊北山二首〉 속에는 天磨山에 들어 와 있지만, 山中을 벗어나 현실에 뛰어들고자 하는 現實志向의인 心情이 깔려 있듯이, 현실을 벗어나 떠돌아 다니며 쓴 이 詩 속에도 그와 같은 심정이 짙게 깔려 있다.

이규보의 對社會·國家意識은 다음의 〈八月五日聞群盜漸熾〉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婦女哭夫婿	부녀자가 죽은 남편을 곡하며
髮首吊枯骨	머리에 삼베 두르고 마른 뼈를 조상하네
荒村早關門	황량한 촌락에 일찍 문 닫으니
白日行旅絕	대낮에도 길 가는 나그네 전연 없구나
今年況復早	금년에는 더군다나 다시 가물어서
望雨甚於渴	비 기다리는 것이 목마른 것보다 심하구나
田野皆赤土	논밭은 모두 붉게 타서 곡식 싹이 무성한 것을 볼 수 없네
未見苗芽茁	곡식싹이 무성한 것을 볼 수 없네
富屋已憂飢	부자집도 벌써 식량을 걱정하는데
貧者何由活	가난한 사람이야 어떻게 살 수 있으랴
朱門日吐茵	고관의 집에서는 날마다 자리에 술을 토하고
百爵耳自熱	백 잔을 마시니 귀가 저절로 더워지네
高堂森玉簪	고당에는 옥비녀가 늘어서 있고
密蔭擁羅襪	빽빽한 자리에는 비단 버선을 끼고 있네
但識門爇灼	문호의 융성한 것만 알고
不憂國梟杭	국가의 불안한 것은 근심하지 않누나
腐儒雖無知	썩은 선비 비록 아는 것은 없으나
流涕每嗚咽	눈물을 흘리며 매양 목메어 흐느끼네

35) 〈月夜聞子規〉《全集》6, p.71.

嗟非肉食徒	슬프다 녹을 먹는 관리가 아니라서
未掉直言舌	직언하는 혀 내두르지 못하였네
已矣若爲陳	할 수 없다. 어찌하면 진달하랴
天陸無由謁 ³⁶⁾	천계를 뵈올 길이 없구나

尙州에 가서 龍潭寺에 머무는 중이던 8월 5일에 지은 이 詩는 群盜와 官軍, 富者와 貧者의 대립을 根幹으로 하여 당시의 社會現實을 보는 이규보의 現實認識을 뚜렷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규보는 생략된 전반부에서 民亂에 참여한 사람을 도둑떼라고 하여 生民의 賊으로 인식하고 있어 民亂군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규보는 무인집권 하에서 일어난 民亂을 단순히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민생을 괴롭히는 실체로 파악함으로써 그가 가지는 對民觀의 限界性³⁷⁾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짐에 따라 늘어나는 백성의 피해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그의 愛民意識을 보여 주고 있다. 총 38句로 된 이 작품의 전반부인 1~16句까지에서는 도적을 바라 보며 氣부터 먼저 꺾이는 郡守와, 활개치는 도적들에 비해 제대로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는 官軍의 無力함을 신랄하게 批判·諷刺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 질수록 백성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이규보는 이 詩에서 눈발이 모두 타서 험벗고 있는 一般庶民들의 비참한 생활은 아랑곳없이 극도의 사치를 누리는 貴族社會의 퇴폐성을 극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현실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문호의 융성함만 알고 국가가 불안한 것을 근심하지 않는 당시의 식자층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憂國衷情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武臣政權 하를 살다간 林椿이 국가사회의 혼란상에 직면하여, 단지 벼슬하는 사람들이 근심할 일이지 자기 같은 圈外의 사람들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고 한 것³⁸⁾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규보는 끝 6句에서, 高級官吏의 無能과 奢侈로 인해 야기된 國家의 불안한 현실에 직면하여 임금에게 直言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와하고 있다. 임금에게 直言할 수 없는 것은 임금을 가리고 있는 人의 帳幕 또한 대단했기

36) 《八月五日聞群盜漸熾》《全集》6. p.69.

37) 朴性奎, 〈李奎報의 對民觀—慶州民亂과 관련하여〉《韓國學論文集》13輯 (啓明大韓國學研究所, 1988), p.40.

38) “今聞群刀盛 侵邑面功都 朝邑懸美賞 州郡募壯夫 世患非吾事 食肉者謀謨”〈寄山人益源〉《西河集》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높은 官職에 올라야만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 詩에서는 矛盾된 社會·政治現實을 비판하면서, 國家의 장래를 위해 直言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인 現實志向意志가 표명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 詩에 이르러 그와 같은 意志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楨卯撐枝幾許枚	가지에 달린 붉은 알 몇 개나 되는가
滿林歡倒醉中腮	취한 불이 숲에 가득히 드리웠네
紅綯囊裡藏紅粒	붉은 주머니 속에 붉은 쌀알을 감추었으니
要見霜風整拆開 ³⁹⁾	서러 바람 만나 남김없이 터뜨리리라

이규보의 심정을 잘 보여 주는 이 詩는 현실지향의지를 전면에서 부각시키고 있지는 않다. 8월 9일경 元興寺의 珪公이 붉은 석류가 막 익은 것을 보고 청하기에 쓴 것이기는 하지만, 붉은 석류를 단순히 묘사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규보는 붉은 석류를 통해서 자신의 處地와 意志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이규보가 단순히 아름다운 석류만을 노래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에 비유한 예는 또 있다. 이규보는 1199년, 과거에 장원한지 10년만인 그의 나이 32세 때, 知奏使 崔忠獻의 아들인 崔怡의 집에 千葉榴花가 만발하자 당대의 명사들과 함께 초대된 적이 있다. 이규보는 그 자리에서 햇별을 담뱃머금고 활짝 핀 석류꽃을 읊으면서, '예쁜 빛 아끼어 늦게 피라 시켰으니, 워라서 조물주의 그 마음 알리오'⁴⁰⁾라고 하여 석류꽃이 봄의 온갖 꽃이 다 피고 진 후에 늦게야 피는 것을 자신에 비유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끝 구에 '내가 늦게 현달함을 스스로 비유한 것이다'라는 註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元興寺에서 쓴 석류의 詩는 비유적임을 알 수 있다. 2句는 당장이라도 重用만 된다면 훌륭히 經綸을 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力量이 무르익어 있음을 暗示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이 뜻과 같지 않아 자기의 抱負와 力量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이지 (3句), 언채라도 인정해 줄 實權者나 時熙(霜風)를 만나면,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여 포부를 실현시키고자 함(4句)을 暗示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 대한 좌절과 거기에 따른 미련이 크면 클수록 외로운 마을의 피리 소리 하나에도 쓸쓸해 하며, 他鄉에서 병을 앓으니 쉽게 슬퍼지는 것이다.⁴¹⁾

39) 〈紅榴始熟公乞詩〉《全集》6, p.71.

40) “惜脆教開晚，誰知造物心”〈己未五月日知奏事崔公宅千葉榴花盛開世所罕見特喚李內翰仁老金內翰克己李留院湛之咸司直淳及予占韻命賦之〉《全集》9, p.102.

41) “孤村何處吹寒笛，抱疾他鄉易惱情”〈十七日入大谷寺〉《全集》6, p.72.

이 때쯤 해서는 故鄉인 黃驪가 他鄉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슬픔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定住의 갈망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我有一弱女	나에게 어린 딸 하나 있는데
已識呼爺孃	벌써 엄마 아빠 부를 줄 안다네
牽衣戲我膝	내 무릎에서 옷을 끌며 애교부리고
得鏡學母粧	거울을 대하면 엄마 화장을 흉내낸다
別來今幾月	이별한지 이제 몇 달만인가
忽若在我傍	홀연히 내 곁에 있는 것 같구나
我本放浪士	나는 본래 방랑하는 선비로서
落魄寓他鄉	외로이 타향에 붙여 있다
沉醉數十日	수십일을 술에 취하기도 하고
病臥三旬強	한 달이 넘도록 병으로 눕기도 했다네
廻首望京闕	머리를 돌려 대궐을 바라보니
山川鬱蒼茫	산천이 푸르러 아득하구나
今朝忽憶汝	오늘 아픔 홀연히 너를 생각하니
流淚濕我裳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시누나
僕夫速秣馬	마부야 빨리 말을 먹여라
歸意日轉忙 ⁴²⁾	돌아갈 마음 날로 더욱 바빠지는구나

어린 딸 아이의 재롱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을 통해 자식에 대한 愛情을 절실하게 묘사한 다음에 他鄉을 방랑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만, 고향은 아득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돌아갈 마음 더욱 바빠지지만, 꿈 속에서나 갈 수 있을 뿐이다.

南窓半日偷睡	남창에 한나절 틈을 타서 졸다가
夢到洛陽城市	꿈에 낙양 성시에 이르렀네
覺來猶臥一床	깨어보니 그대로 한 침상에 누워 있는데
已度千山萬水 ⁴³⁾	벌써 수많은 산과 물을 지냈구료
萬里江山一病身	만리 강산에 병든 이대 몸
東華夢跡軟香塵	동화문의 향기로운 티끌을 꿈 속에 밟았네
長安不是天難到	장안이 하늘에 오르기처럼 가기 어려운 곳은 아님데
漳浦沉淝泥殺人 ⁴⁴⁾	장포에 병들어 쉽게 하여 지체하게 하였네

42) 〈憶二兒二首〉 중 其一, 《全集》6, p.73.

43) 〈南窓熟睡夢到長安覺而志之〉 《全集》6, p.73.

44) 〈憶長安〉 《全集》6, 73.

이 때쯤 해서는 이규보의 머리 속에는 운동 開城에 돌아가는 생각뿐이다. 그러기에 언제나 장안에 돌아갈까 하면서 푸른 하늘만 바라 볼 정도가 되었다.⁴⁵⁾

그러면서, ‘香’과 ‘塵’의 異質의 요소를 並置시켜 놓은 ‘香塵’이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듯이 이규보는 정신적 갈등을 느끼고 있다. 開城은 머리가 까맣게 윤 빛나는 딸 아이와 흰칠한 아들이 있는 그림고 향기로운 곳⁴⁶⁾이기도 하지만, 옷을 퇴색시키는 티끌이 있는 곳이기도 싫은 곳⁴⁷⁾이기도 하다. 그는 본래 機心이 없다고 하면서도 인간 세상에 뜻을 잃고 조금씩 하는 자신을 비유적 표현⁴⁸⁾을 통해 자학하며 경멸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장부는 뜻에 맞게 하는 것이 귀하거니, 가고 머무는 것에 어찌 모름지기 개의하랴’⁴⁹⁾는 진술을 통해 自慰하고 있다.

.....

歸田計未遂 전리로 돌아가는 계획은 이루지 못하고

戀闕意難勝⁵⁰⁾ 대를을 생각하는 뜻은 이기기 어렵구나

.....

이규보는 9월 15일 尙州를 출발하면서 쓴 이 詩의 표현처럼, ‘歸田’과 ‘戀闕’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지만, ‘戀闕’이 더욱 강하여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이처럼 현실지향의지가 강해지면서 그 동안 지냈던 자연지향의지를 부정하고 나선다. 그는 여러 사람의 물음에 스스로 ‘隱居’를 내세운 데 대해 가소롭다고 까지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다음 날에 서울로 향하는 벽찬 감회를 누르면서 또 詩를 짓는다.

.....

富貴如浮雲 부귀는 뜬 구름과 같고

身世非我有 세상은 내 소유가 아니라네

子幸全其身 그대 다행히 몸을 온전히 하여

慎勿爲名累 삼가 명예의 재물이 되지 말게나

45) “長安何日到, 目斷碧天涯”〈旅舍有感次古人韻〉《全集》6, p.73.

46) “最憶鵲頭女, 還懷犀角兒”〈思家〉《全集》6, p.73.

47) “化衣厭洛塵”〈九月十三日會客旅舍示諸先輩〉《全集》6, p.74.

48) “與物本無機, 曾把漢陰甕, 胡爲人間世, 失意翻慙恫, …… 蜺蜺嘲龜龍, 鵲鵲笑我腰” 같은 작품, 같은 곳.

49) “丈夫貴適志, 去駐何須桎”, 같은 작품, 같은 곳.

50) 〈九月十五日發尙州〉《全集》6, p.74.

我今向玉京	내 이제 서울로 향하는 것은
非爲青紫取	公鄕을 바라서가 아니니
待當婚嫁畢	혼가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復此耕一畝 ⁵¹⁾	다시 이 두둑을 갈리라

.....

이 詩에서는 人生의 有限性을 절감하고서 富貴와 功名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超世的 자세를 어느 정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現實逸脫意志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미 서울로 향하고 있는 이규보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은 적극 찾아나서 定住해야 할 만큼 의미 있는 곳이 아니라 여가를 틈 타 찾아볼 만한 곳 정도로 변해 있다. 그러므로 다시 歸田하겠다는 표현은 말뿐일 수 있다. 이 詩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감흥을 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별하는 친구에게 서울로 향하는 자신을 변명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반년 동안 山水間에 떠돈 것을 두고, “세월을 부질없이 길바닥에 던져버렸네”⁵²⁾라고 할 정도에 이르고 말았다.

보다 변화된 이규보의 모습은 서울로 돌아와 지은 다음의 詩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厭看村邑烟火微
 數屋蕭條龜殼毀
 喜見京都風日佳
 萬家邇遠魚鱗比
 李邕入洛故依然
 馬鄉遊邇還夢耳
 此行可笑不可誇
 寄語交遊勿嘲戲
 我家新釀方壓槽
 聊復招邀客一醉⁵³⁾

쇠미한 시골의 연화 보기 싫다
 쓸쓸한 두어집 거북 껍질처럼 헐었네
 보기 좋다 날로 아름다워지는 서울의 풍경
 수 많은 집 연접하여 고기 비늘처럼 가지런하네
 이옹이 낙양에 들어오니 전과 다름이 없고
 마경이 임공에서 놀던 것도 도리어 꿈이었네
 이번 일이 우습기만 하고 자랑할 것 못되느니
 친구에게 부탁건대 비웃고 희롱하지 말라
 우리 집 새로 빚은 술 지금 용수에 가득찼으니
 다시 불러 만나서 한번 취하리라

이 詩에서는 시골과 서울의 풍경이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다. 떠돌아 다니던 몇 달 전의 시골 풍경과 돌아온 지금의 그것 사이에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겠지만, 이규보가 인식하는 정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는 고

51) 〈明日又作〉《全集》6, p.75.

52) “歲半東遊歲杪還，光陰空擲道途間”〈復黃驪示李秀才〉《全集》6, p.76.

53) 〈十月二日自江南 入洛有作示諸友生〉《全集》6, p.77.

향 마을을 蓬島와 沃州와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또 日月이 한가로운 곳으로 관념하고 묘사했다. 이에 비해 서울은 난리로 거리마다 검붉은 피가 흐르는, 風塵이 아득한 것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아름답고 평화롭던 시골은 쇠미하고 쓸쓸한 곳으로 인식되어 보기조차 싫은 대상이 되어버렸고, 어지럽던 서울이 오히려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이 되고 말았다. 그러기에 江山主를 자처하며 지내던 일도 헛된 꿈으로 넘겨 버린다. 자랑할 것도 못되는 우스운 일로 친우에게 회롱이나 당하지 않을까 마음 쓰일 뿐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이규보의 作家意識의 限界를 볼 수 있다.

V. 맺 음 말

그 동안 이규보의 作家意識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실로 구구하며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그러한 점에 주목하여 <南遊詩>이 나타난 隱顯觀을 살펴 이규보의 작가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로 삼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규보는 여러 詩文을 통해 隱顯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니, 그는 때가 隱居해야 할 때면 隱居에 멈추고, 때가 顯해야 할 때면 顯에 멈추어야 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세는 24세 때 天磨山에 寓居하여 白雲居士라 字號할 때부터 싹터온 것이기도 한데, <南遊詩>에는 隱이라는 現實逸脫意志와 顯이라는 現實志向意志가 共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紀行詩의 性格을 지닌 <南遊詩>는 ‘출발→노정→목적지→귀로’라는 여행의 단계에 입각하여 창작되었기 때문에 隱顯의 모습과 함께 그것의 展開樣相을 살펴 보기에 용이하였다.

이규보는 혼탁한 현실의 어떠한 공간에서도 安定과 平和를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떠나면서 떠돌을 無意味한 것으로 인식하고 심란해 한다. 그러면서 자연지향의지를 보이는데, 이것은 열려진 세계를 지향하는 自由奔放하고 曠達한 天性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해도, 떠돌에 대한 自慰的인 표현일 수 있다.

곧 이어 자연의 조화된 모습과 違和된 자신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그의 자연지향의지는 현실의 혼탁함에서 벗어나면서 일어난 것이기에, 자연에 가까이 가셔도 자연에 몰입하지 못하고 정신적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그가 그때까지는 자연을 관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자연의 조화미를 관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정신적 갈등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정을 찾게 된다.

한편, 이규보는 고향에 들어가면서 안도감을 느끼는데, 이때 자연은 나그네의 육체적 피로나 고뇌를 씻어줄 공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연에 永住하기를 거부하니, 그의 田野隱居는 一時的 避世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한편으로, 자연은 현실지향의지가 좌절되는 데서 오는 패배자의 安住處로, 현실에 대한 관심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스스로 高踏을 추구할 공간으로 관념되기도 한다.

現實逸脫에 따른 자연의 의미가 다양하였음에 비해, 現實志向에 따른 삶의 姿勢는 단순한 편이다. 앞에서 超世的 態度마저 보여준 이규보이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되자 잠겨 있던 현실지향 의지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곤궁한 신세를 면해주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官職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난다. 관직에 대한 열망은 그 훨씬 이전부터 가져 온 것이지만, 사회·국가의 현실에 대한 관심은 이번 여행에서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목도하면서 가지게 된 것이다. 矛盾된 社會·政治現實을 비판하면서, 國家의 장래를 위해 直言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바, 보다 적극적인 현실지향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때부터 고향인 黃驪가 他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定住에 대한 갈망으로 자나 깨나 서울 생각뿐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혼탁하고 不正한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급해 하는 자신을 자학하며 경멸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歸田’과 ‘戀關’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는 결국 자연지향의지를 부정하고 현실로 돌아온다. 서울로 돌아온 이규보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어 시골을 쇠미하여 보기 싫은 곳으로, 서울은 화려하여 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통해 이규보가 지닌 작가의식의 한계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규보가 隱顯의 兩面性을 지녀 〈南遊詩〉에서 현실일탈의지와 현실지향의지를 보여 주고 있지만, 그때마다 정신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자연과 현실 그 어느 쪽도 만족할 만한 공간이 될 수 없기 때

문이다. 자연은 이규보와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공간으로, 현실은 혼탁하여 기대보다는 좌절을 안겨 주는 공간으로 관념되기 때문이다.

현실이 혼탁하고 不正하여 자신을 용납하지 않으면 자연지향의지를 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대한 좌절에서 오는 아픔이나 불만 때문이지, 현실을 떠나서는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는 결국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할 것을 염원했던 것이다.

本稿는 隱顯觀을 중심으로 〈南遊詩〉를 고찰한 것이기에 〈南遊詩〉의 紀行詩的 면모를 살피지는 못했다. 이규보의 詩世界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紀行詩로서의 〈南遊詩〉를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